국회부의장 선거 공보

총선 민심을 받들어
입법부를
제 대 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드러난
개혁 입법 민심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내린 국민의 명령은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였습니다.

제출된 법안을 의장 권한으로 조정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시행령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잘못된 중재안 처리,

양당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 거친
특별법 의안 상정과 본회의 개최 지연 · 회피,

이 모두 개혁을 막으려는
보수정당의 떼쓰기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닌
의장단이 만든 답답한 입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저 이학영
타협이나 관례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입법부를 바로 세워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 막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요건을 현행 200석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무력화되는 국정감사,
청문회의 권한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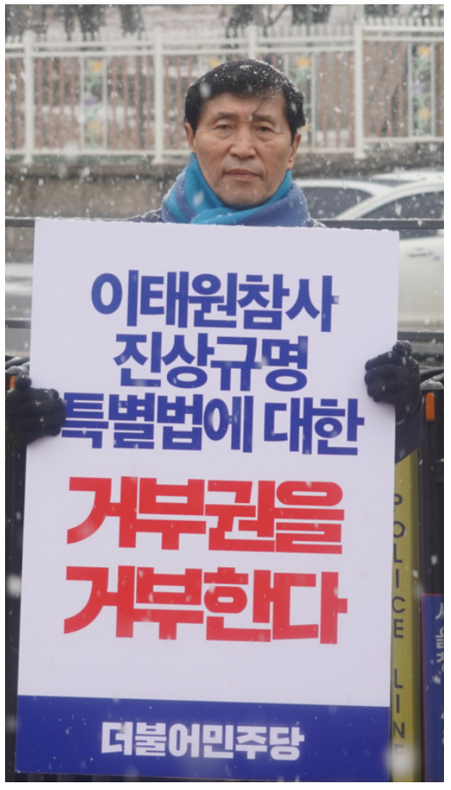
– 각 부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소통하며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선수별, 상임위,
지역별로 의원님들을 수시로 만나 국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의원님 관심 분야 의정활동과 토론회, 국회 차원의 행사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학영이 하겠습니다!

86일 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이어졌던 김건희 특검 통과 촉구 농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농성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위 활동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살을 에는 겨울바람이 불거나 타는 듯한 폭염이 내리쬐어도
광장에서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있어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입법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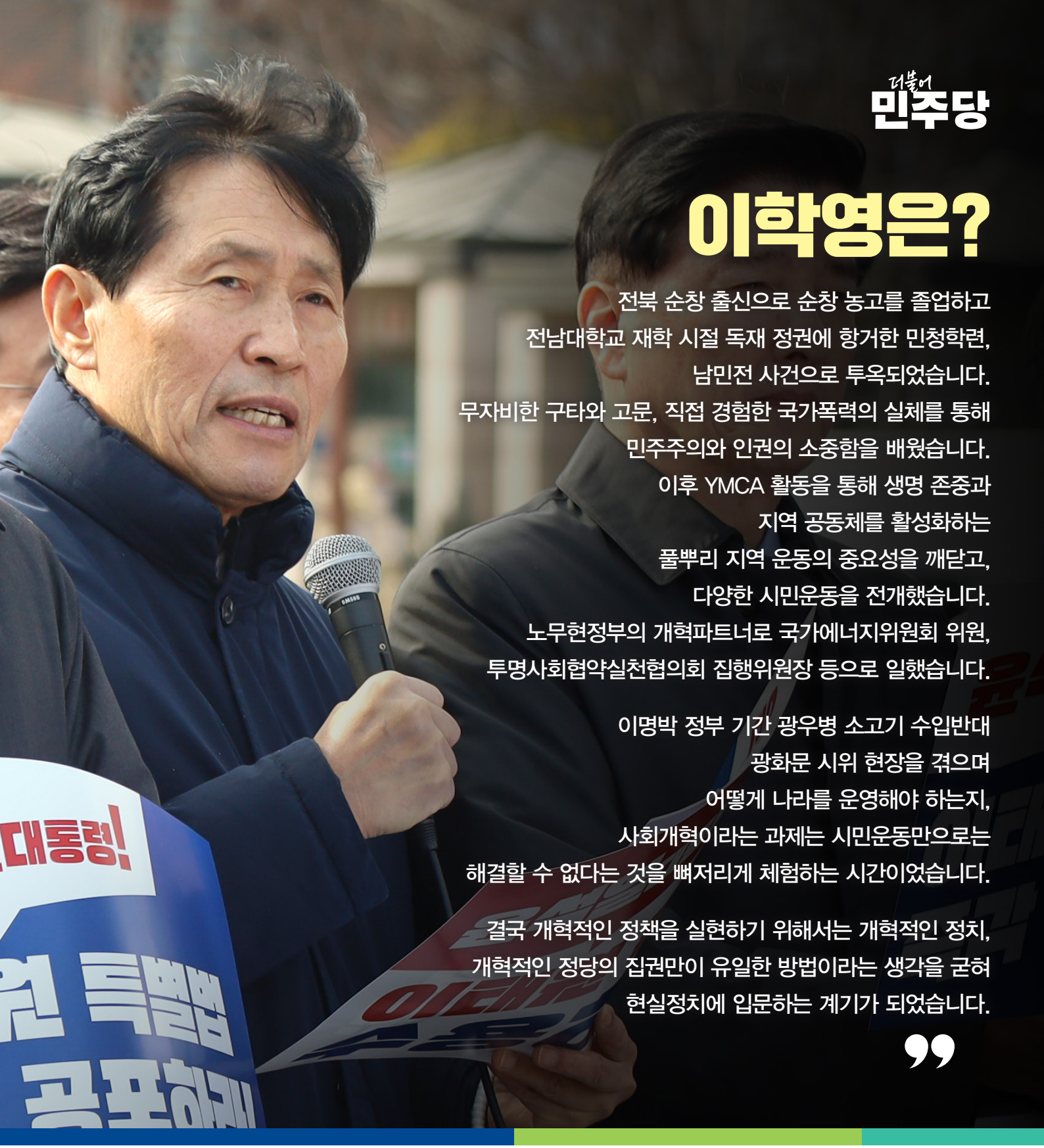


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입법 권력을 회복하는 일,
그렇게 해서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그동안 국민들, 당원들이 우리에게 준 과분한 역할과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의회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의장단 선출이 필요합니다.

저 **이학영**이 해내겠습니다.
희망의 정치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순창 농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재학 시절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 직접 경험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후 YMCA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지역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개혁파트너로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광화문 시위 현장을 겪으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지,
사회개혁이라는 과제는 시민운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개혁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정치,
개혁적인 정당의 집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굳혀
현실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이학영이 걸어온길

- 19, 20, 21대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전)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경기도 광역선대본부장(전)
- 경기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전)
-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전)
- 노무현재단 상임고문(현)